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協商

最近의 動向과 앞으로의 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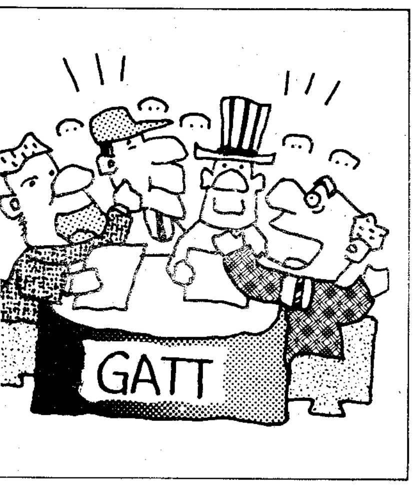
농림수산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아직도 관세화, 최소의무량 수입, 보조금감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7월2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비공식회의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35개국이 참석, GATT 멘켈의장의 대안서를 기초로하여 국내보조금 삭감 등 여러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토의를 벌였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GATT에서는 가능한한 9월중에 이들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토의를 종결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에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공식·비공식회의에 있어서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기준년도 명백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기산점이 정해지고 각국이 이행계획(Country Plan)을 제출할 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공품중 원료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원료농산물의 관세상당치에 곱한 것이 가공품의 관세상당치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국가는 많이 교역이 이루어지는 가공품은 국내외 가격비교가 가능하므로 직접 관세상당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품질계수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환율은 변화가 매우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평균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 최소시장 접근

▲최소시장접근 분야에서 수출국은 이미 수입되고 있는 상품은 현재 개방수준에서 일정비율을 더 허용하고 수입이 없는 상품은 최소한 일정비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수입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으며 전체적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의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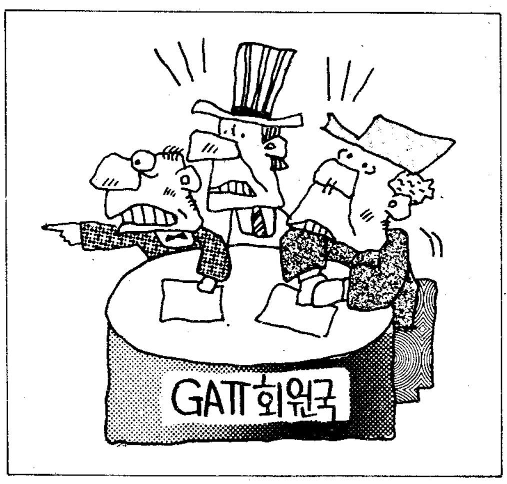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이미 관세화자체가 시장개방을 전제로한 것인 만큼 최소시장접근이 불필요하며 또한 최소시장접근은 관세화, 11조2항(C)―국내생산을 감축할 경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대상품목, 식량안보 대상품목에 각각 구별해서 적용되어야 하며 11조2항(C) 대상품목은 최소시장접근을 받드시 인정하여야할 것이나 식량안보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최소시장 접근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4、수출보조분야

수출보조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수출보조로 볼 것이며 이러한 수출보조를 어떻게 감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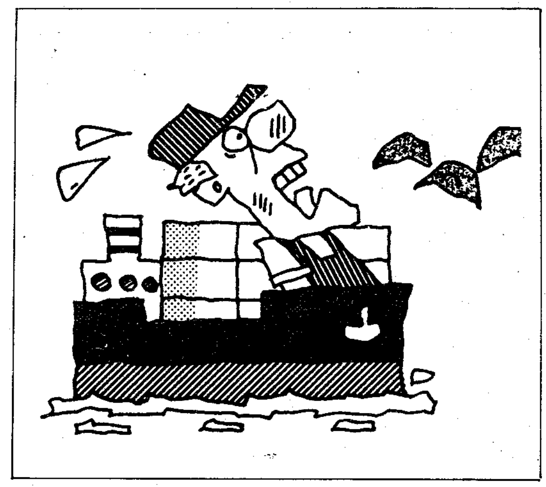
▲첫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보조에서 허용대상정책을 인정할 때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바 우선 수출보조에 대한 정의를 하고 한편으로는 수출보조의 예를 들고 있다.

▲수출보조의 정의는 GATT 제16조3항에 『수입을 증대시키는 모든 형태의보조』라고 나와 있으나 이는 너무 간단하고 일반적이어서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많고 보조금 상계관세 그룹의 협정안에도 수출보조의 정의가 있으나 이는 공산품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농산물에는 적합하지 못한 점이 많다는 것이 협상국들의 의견이어서 자세한 수출보조의 정의가 새로이 시도되고 있다.



수출보조의 예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출관련 산업에 주는 직접보조、생산자에 대한 차액보상、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금융지원、수송비용 및 선적에 대한 보조、수출과련 조세감면、수출시용의 제공、생산자 자조금에 의한 자발적 수출보조 등이며 이중 수출신용、차액보상、생산자 자발적인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번째 문제인 감축방법은 수출보조에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감축해 나가되 수출보조의 대상이 되는 물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일본, 케언즈그룹 등은 수출보조도 상품 단위당으로 계산되어 이를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나 EC、미국 등은 상품단위당 수출보조의 계산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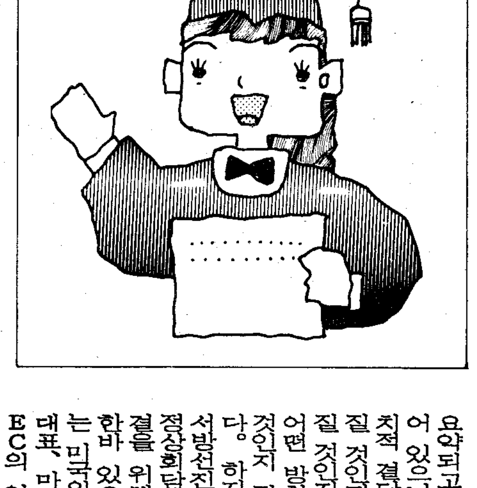


5、향후 협상전망

향후 협상은 우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기술적 문제들이 협상진행대안서(Options Paper)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아울러 정치적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개월간의 회의를 통해 이제 모든 분야에서 각국의 입장은 뚜렷하게 나타났으므로 정치적으로 어느 선에서 어떻게 타결하느냐가 주요한 과제이다.

케언즈그룹은 농산물분야에서 합의없이는 UR협상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농산물 교역제도의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며 타협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EC는 급작스러운 개혁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좀더 개방화, 국제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고 일본은 미국、EC가 융통성을 보이기 전에는 일본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개도국、수입국들의 입장도 균형과 형평의 차원에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주요협상국의 입장이 지난해 이래 기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며 정치적 결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쟁점의 차이가 요약되고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장담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지난 7월의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도 년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바 있으며 7월30일에는 미국의 힐즈 USTR대표, 마디간 농무장관이 EC의 안드리센 대외집행위원, 맥쉐리 농업집행위원과 만나 향후 협상방향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절들을 감안할 때 금년내 타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글은 농업통상소식 제8호(91·8·9)에서 발췌한 것임〉



連載 栽培敎室

'91新規會員을 爲하여

작약 (芍藥)

화명: 적작약、백작약
과명: 작약과
용도: 진경、진통、수렴、수통、복통、적리、지한、조경
약용부: 근(根)

1、재배법

①적지

▲기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중부이남 지방이 좋다.

▲토질: 표토가 깊고 비옥하며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나 반점질양토가 좋다.

②품종

식물학상 백작약과 적작약으로 분류한다.

구 분	성 상
백 작 약	뿌리는 굵으며 짧고 색깔은 백색이다. 향내가 적작약에 비하여 많이 난다. 야생시는 산중턱에 주로 북쪽으로 바위틈이나 나무사이에서 자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적 작 약	뿌리가 가늘고 길게 쭉쭉 뻗으며 색깔은 자색이다. 백작약에 비하여 향기가 적으며 야생시에는 주로 양지바른 동남쪽에서 자생 하는것이 보통이다.

이상과 같이 백작약과 적작약을 구분할 수 있으나 최근들어 우리가 재배하는 작약은 대부분이 백작약이다.

③번식

종자및 분주법으로 한다.

▲종자번식: 시일이 오래걸리므로 속성인 분주재배법을 선택해야 한다.

▲분주번식: 분주시기는 9월중순~10월하순사이에 작약의 포기를 완전히 캐낸 다음 뿌리를 잘라서 가공하여 약재로 사용하고 윗부분만 노두 한구루에 건실한 눈 2~3개를 붙여서 쪼갠다. 자를때 세근을 붙여서는 안된다. 세근을 붙여 놓으면 신근이 생기지 않고 세근만 자라기 때문에 활착이 지연된다.

芍 藥

④재배요점

▲분주정식: 분주를 정식하기 15일전에 퇴비、용성인비 복합비료 등을 충분히 살포하고 갈아 엎어 두었다가 15일이 되면 다시 밭을 갈아 50㎝정도(고구마 두둑과 비슷하게)의 두둑을 짓고 분주묘를 30㎝간격으로 노두가 위로 향하게 심는다. 식재후에는 약간 깊에 흙을 덮어주고 월동을 위하여 볏짚을 덮어 준다. 3백평당(10a) 노두소요는 4천8백주가 소요된다.

⑤시비및 관리

이듬해 봄이 되면 싹이 나오는데 작약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김을 뽑아 준다.

봄에 연한 싹눈이 나오면서부터 장마가 지거나 가물면 줄기에 흑갈색 무늬가 생기며 고사하기 쉽다. 이때는 소석회를 줄기에 뿌려준다.

심은 이듬해 봄에는 심을때 비료를 주었으므로 추비를 하지 않고 8~9월 중순 사이에 퇴비를 충분히 덮어 준다.(돼지두엄이나 잘 썩은 계분등) 2~3년은 언제라도 퇴비、복합비료、용성인비 등을 추비하는데 음력 7월 처서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2、수확및 조제

수확시기는 4년근이 수확하는 것이 좋으며 9월중순~10월 하순경 캐서 뿌리 부분만 물에 씻어 겹질을 벗겨 건조한다.

거피는 기계에 넣어서 거피하거나 대나무칼로 거피하며 건조는 건조장에서 60% 건조후 양건하는 것이 색깔도 좋고 양질을 만들수가 있다. 수확은 3백평당(10a) 생근 3천kg(4천8백근) 건근 1천kg(1천6백근) 정도 된다.

※유의할 점

○발아후 김매기할때 뿌리를 건들지 않게 한다.

○가물거나 장마시에는 줄기에 흑갈색 무늬가 발생했나 관찰하여 소석회나 석회 보르드액을 산포한다.

○식재후 4년에 수확함으로 밑거름을 많이 주고 웃거름도 성장 과정에 따라 시비한다.

○건조장에서 건조시는 60%정도만 건조시키고 양건해야 색깔이 좋아진다.